그리스도 왕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뉴스 (통권 35호)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36길 7
발행인: 이계철 라파엘 주임 신부님
편 집: 시흥4동 성당 기획·홍보분과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sh4d

부활 맞이 성당 대청소, 시설물 관리 대안도 필요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은 4월 14일(주님 수난 성지 주일) 11시 교중미사 후에 임금이신 그리스도 입성을 맞이하고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 대축일 축제를 지내기 위하여 겨울 동안의 먼지와 동절기 두꺼운 외투 자락이 부딪쳐 떨어진 솜뭉치 같은 불순물들이 쌓인 성전 대청소를 12개 구역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다. 성전은 8, 10구역. 성전 지하 봉사자실과 성물 보관실은 4구역. 교육관 3,4층 복도와 옥상 청소는 11구역. 교육관 2층 9개 회합실 청소는 7구역. 2층 복도와 남녀 화장실은 9구역. 교육관 1층 만남의 방, 남녀 화장실, 집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청소는 2구역.

교육관 공동주방 청소는 여성 구역장. 교육관 그리스도 왕 홀 청소는 1, 3구역. 지하 복도, 남녀 화장실과 비상계단은 5, 6구역이 담당하였으며, 12구역에서는 성전 외곽 울타리 주변과 주차장, 성모상 세척, 데어케어센터 2층 회합실 2개, 3층 전체를 청소하였다. 구역별로 분담받은 장소를 청소한 후 중식으로 여성분과에서 준비한 돼지 불고기, 생두부, 카레 덮밥과 곁들여 생막걸리를 양조장에서 조달하여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뜻깊은 부활 맞이 행사였다.

특히, 이번 대청소로 새로이 발견된 것은 본당에서 평상시 매주 각 분과와 구역에서는 성전과 회합실 청소만 해 왔는데 손이 가지 아니한 장소에도 큰 화재나 건물에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발견되었다. 성전 지하 봉사자실과 성물 보관실은 다른 회합실과 다르게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관계로 청소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겨우내 전 신자들의 옷자락에서 떨어진 불순물들이 솜뭉치처럼 쌓여 정전기나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모든 성물과 시설물이 소실할 수 있는 재앙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교육관 4층 옥상에는 우수배관이 막혀 인력으로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 결국 기계를 이용해서 수리하였다. 이러한 시설물 점검과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불시에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